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4〉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이 명상을 한다

미국·프랑스는 명상인구 증가 추세
선의 보편화에 한국불교 미래 달려

9월 28일 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가 '현대 명상 문화와 한국선의 과제' 였다. 행사는 '그들만의 리그' 로 끝난 것 같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명상에 대한 보편성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禪)은 명상(Meditation)이라는 용어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북방의 간화선보다는 남방의 위빠사나가 세계적으로 저변화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평화주의자이다.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에 수행공동체인 플럼빌리지를 세웠는데, 그 곳에 참가하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이곳에서 명상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도 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이라는 자국의 불자들에게만 국한해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평화와 자비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단, 마음을 열고 불교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종교평화선언' 이 최선이지만, 굳이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종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요,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광대가 홀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서 '일체법(一切法)이 불법(佛法)' 이라고 했다.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의 진리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실상을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인데, 선이라고 하는 실천체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닦는 선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는 '불교' 라는 이름으로 세계사에 종교전쟁이 없었다. 어느 나라에 불교가 유입될지라도 그 나라 문화 풍토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었다.

진리 차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참 삶의 길을 제시한다. 참 삶의 길을 실천하는 선, 즉 명상은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다. 불교는 행(行)을 통해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요, 신의 종교가 아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다"라고 하였고, 분석심리학자 칼 융은 "선은 동양의 정신 가운데서도 불교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훌륭하게 수용하여 핀 중국 정신의 가장 놀라운 꽃이다"라고 발언했다.

1950년대 일본의 스즈키다이세츠(領木大拙)가 서양인들에게 최초로 선(zen)을 알렸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영국의 가수 비틀즈가 인도를 수차례 방문하고 명상함으로서 당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했다. 비틀즈를 시발점으로 인도 요가와 명상이 서양에 알려지면서 선은 서양인들의 관심사가 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의 마하시, 태국의 아잔차, 베트남의 틱낫한, 한국의 숭산, 대만의 성엄 등 동양의 스승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양에 선을 전했다. 선의 시작은 동양이지만, 20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재가자들의 명상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한몫 했다. 리처드 기어는 1980년대 초부터 달라이 라마를 후원하면서 티베트 독립을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시킨 장본인이다. 알렉 볼드윈,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맥 라이언 등 스타들도 티베트를 후원하면서 불교와 명상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발돋움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많은 서양인들이 티베트·태국·일본·미얀마·한국에 출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출가한 1세대 서양 승려들 혹은 재가 수행자들이 아시아에서 10여년 이상을 수행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직접 명상을 지도하며 서양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됐다.

이 명상 지도자들의 독특한 점은 선을 자국의 현실과 문화에 변형시켜 지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양의 명상 지도자들 대부분이 미얀마·태국에서 위빠사나를 한 뒤, 명상을 의학·심리학·정신분석·과학 등과 함께 접맥시켜 새로운 불교 코드를 형성시켰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사인 존 카밧진이다.

미국의 성인 인구 8명 가운데 1명이 명상을 하고 있고, 고교 교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프랑스인들은 몇 년 전부터 명상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서양인들이 불교로 개종하고, 채식하는 등 불교적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종교는 버리지 않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배우고 명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을 재가자들에게 보편화 하는 길이다. 간화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되 승려가 발 벗고 나서기보다는 미얀마의 마하시나 태국 아잔차 스님처럼 눈 푸른 납자들이 배출돼야 한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의 미얀마나 태국으로 명상자들이 몰려가듯이 한국 승려들의 진정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한번쯤 가고 싶은 한국, 한번쯤 수행하고픈 한국의 간화선으로 재탄생돼야 한다.

명상은 종교·국가·이념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재산이요, 문화이다. 붓다의 진리가 중생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박수경 소장의 자연주의 교육

한국 아이, 스마트(Smart)해요

"지원(Jiwon)이는 스마트해요! 예의도 바르고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4년 간의 독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결정을 하였을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리카(Erika)가 우리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귀국을 위한 초등학교 송별파티에서 에리카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에리카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었다.

'한국 아이들은 모두들 그렇게 예뻐요' 라고.

아이들과 한국행을 준비하던 2003년 무렵에는 세계학력 평가 대회인 PISA-Study의 결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대단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를 왜 잘 할까? 이에에 대해 교육의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지대하였고 독일도 예외가 아닐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답을 '지원이에 대한 Erika' 의 말을 통해서 나는 들었던 것이었다.

교육에서 최상의 목표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본다면 우리들은 생활을 통하여 최상의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전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 부모 개개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명품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낯선 독일 생활이지만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 또렷이 구분할 수 있었다. 한국 문화와 가정교육의 독특성이라고 할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타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의 강점을 더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한국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되는 준비과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할 도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이뤄졌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런 당연시 된 문화가 어느 시점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과제는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당연시 되지 않아가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오래된 전통과 풍부한 문화를 장점으로 꼽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좋은 가족문화와 자연환경, 정이 넘치는 인간관계 등을 열심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뜻 모르고 외웠던 단군의 건국이념이, 지금에 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는 강한 의미로 다시 와 닿는 것은 무엇일까? 훌륭한 인재 배출을 위한 우리 조상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슬기로움이 엿보여 사뭇 경이롭기 조차 하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소장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중국동포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어

조선족 200만 중 50만이 한국에
국내 이주민 수로는 절반에 달해
서울지역서만 이주민의 75% 차지

조선족 또는 재중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조선계 중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한민족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불리운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이라고 표기된다.

중국에서의 조선족 인구는 소수 민족 가운데 13번째로 많다. 전체 약 200만명 중 50여 만 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 중이다. 2011년 행안부 통계로 이주민인구 126만여 명 중에서 50만명 이상이 중국동포로 채워지고 있다. 워낙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같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외국인으로 보기도 뭔가 아닌 것 같다. 현재 서울에만 중국이주민은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막강하다.

리와 얼굴. 골격. 생김새가 아주 똑같아서 식별하지 못하는 점이 실감나지 않을 뿐이다.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의 한 이름이고, 여기에서는 중국동포로 불러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이 시대의 담론이 되고 있다. 조선족이 동포개념인지, 그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사람인지, 엄연한 외국인인지 고르고 따지고 하면서부터 우리국민의 정체성과 역사, 체제 논쟁과 맞물려서 거대 담론으로 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사상의 벽을 뛰어넘어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온 북한동포에 대한 지원책과 정책이 다문화이기 이전에 다른 영역으로 분류되고 확대되자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동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강제로 이주한 슬픈 역사를 통해 정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동포와 다를 게 없다는 논리이며, 북한동포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포용적인 정책을 자기네들에게는 왜 차별하듯이 차갑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통으로 넓게 바라보면, 동포냐 외국인이냐를 따지는 이런 양분적 시각의 질문은 이 시대에 의미가 없다. 즉 세계화. 다문화시대로 들어온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동포개념은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의 입장 역시도 과거에 조선족을 동포관점으로 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력의 한 부류로 접근하는 양상이 짙다.

현재 조선족 출입국 규모를 정하는 정부의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9년에 조선족 체류자 상한선을 30만 30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국내체류자가 줄면 그만큼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선족이 방문취업사증 H2비자로 국내에 머무는 규모는 올해 29만 7000명이다. 방문취업비자는 노무현 前 대통령시절인 2007년 비자문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해체 등 고통을 겪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게 내준 것이다. 이것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특별대우해준 셈이다.

이런 특별대우 때문에 내국인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동포를 외국인. 외국 인력으로 보는 쪽으로 정책 철학을 바꾼 것이다. 어쨌든 2007년 입국해서 비자 시한이 끝나는 중국동포들은 내년부터 매년 6만~7만명씩 출국해야만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서도 굳이 남아있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게 상당수 중국동포들의 입장이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반다문화주의자들의 거센 반감이 일고 있는데 중국동포들의 노동시장 점유가 큰 이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을 쫓아내면 역시 저임금을 쫓아 공장도 해외로 나갈 것이고, 식당 종업원이나 간병인 등의 임금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로 퇴화할 것이 눈에 보이는 예측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과제 그리고 지혜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 문제는 사회통합으로서 서로 포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장겸 레인보우 합창단장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을 검색해 주세요.
「붓다북」에서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붓다북 바로가기 QR코드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